

[사제의 해,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보내는 특별 서한]

친애하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첫 사제로서, 사제 본연의 직무인 가르치고, 성화시키고, 다스리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다가 장렬히 순교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대축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이 대축일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지난 6월 19일(예수 성심대축일)부터 내년 6월 19일까지 “사제의 해”로 특별히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성직자의 수호자이신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아 그분의 영성을 본받으며 ‘사제직무의 효력이 달려있는 영적완득을 향한 사제들의 노력을 북돋우고자 사제의 해를 선포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과 인류복음화성은 ‘사제의 해’가 사제직과 각 사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해로 지낼 것을 당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제의 해는 사제직무의 고귀함을 일깨우고 한 생을 오롯이 주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열의에 찬 많은 성소자들을 격려하고 자 마련된 해인 것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불어 닥친 성소자 결핍 상태는 심각합니다. 유럽과 미주지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지역 역시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제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무사제직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가 우세한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한 생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젊은이들의 결단은 점점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사제는 누구입니까? “모든 대사제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지정된 사람입니다.”(히브 5, 1) 이렇게 사제는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께서 필요하시어 특별히 뽑으신 존재입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현대의 사제 영성”에는 “만일 사제들이 없다면 교회가 인간 역사 안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의 사명을 실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마태 28, 19~)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 19 ; I 코린 11, 24 참조)고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며 사제직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결국 주님과 일치하여 살아야 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사랑도 희망도 얻어내야 합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황님은 ‘사제의 해’ 개막예식을 주재한 강론에서 “교회는 거룩한 사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제를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제가 바로 아르스의 성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늘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사목적 열성과 사랑으로 가득찼습니다. 오늘의 모든 사제들도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사제들의 모범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며 그분의 삶을 생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늘 고심하시던 중에 선교사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 중국으로 가시던 길에 인천 앞바다에서 잠혀 압송되고 결국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라는 극형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한국 사제의 선구자로서 용감히 목숨 바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선교열정과 그분의 믿음 그리고 영성은 후배 사제들에게 길이 빛날 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수도자와 교형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사제들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며,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제를 함부로 대하거나, 인생의 경륜을 강조하며 사회적인 상식에 못 미치는 언어와 행동을 보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제들을 유혹으로 이끌어서도 안 되며 잘못되는 길로 안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 회장은 사제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고난의 길을, 수천 수만리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여장부 강완숙 성녀는 주문모 신부를 자신의 나무 광에 숨겨둔 채 열성을 다해 보살피다가 체포되어 순교하였고 그분의 고귀한 신앙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이러한 성직자 사랑이 이 땅에 복음을 꽃피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이 훌륭할 때 사제들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매일 예수님을 대리하여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이다.’하고 말하며 예수님을 대리합니다. 고해성사로 예수님을 대리하여 죄를 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제의 영적인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제가 사랑을 받을 때 성소도 증가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수도자, 평신도들이 사제직의 가치를 귀히 여겨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훌륭한 사제가 있을 때, 훌륭한 평신도가 자라나는 것이고, 훌륭한 평신도가 있을 때 또한 훌륭한 사제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제의 해를 맞으며 사제들은 사제들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고귀한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평신도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인 복음 선포의 대열에 사제와 함께 힘차게 나서야 하였습니다.

사제의 해를 맞아 모든 사제들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본받아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직무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이 어우러지게 되면 1년 뒤 우리 교회는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기원하며 성모 마리아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청합니다.

2009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 교우주소록 최종 점검 안내

오늘 나누어드린 교우주소록 제작용 양식을 기재하시어 각 구역장님께 다음 주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성당, 교육관 출입문 이용 안내

소성당 출입문을 교우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식 키(KEY)로 바꾸었습니다. 소성당에서 하느님과 시간을 원하시는 교우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습니다. 가실 때는 소등, 뒷정리, 출입문 잠금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패스워드는 오늘 미사 중 알려드립니다.

◎ 견진 성사 신청안내

오는 9월 20일 본당 창립기념미사 때 해밀턴 교구장이신 토너스 주교님의 집전으로 거행됩니다. 견진교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오니 구역장들께서는 견진 대상자를 파악해 주시고,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가대에서 알려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7시30분에 하던 성가연습을 7월 12일 (둘째주일)부터 미사후 대성전에서 연습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연습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7월 안내 담당은 키치너구역입니다.

▶ 8월 : 워털루 3구역

▶ 9월 : 워털루 1구역

시간 봉사도 하느님께 드리는 거룩한 봉헌입니다. 안내 담당 구역은 미사 1시간 전에 나와서 미사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브랜포드 구역 : 7월

▶ 워털루 1구역 : 8월

▶ 워털루 2구역 9월

봉사는 1달에 2회이고, 격 주 토요일에 실시합니다.

◎ 로고스회(성경모임)안내

일시 : 7월 10일 (금) 오후 8시 미사 후

평일미사에 참례하시면 성경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7월 ~ 8월 친교식사 없습니다.^^

◎ 북미주 수녀연합회 연례피정 및 미사 관계로 7월 8일(수) 오전 10시 미사와 성경모임은 없습니다.

◎ 홈스테이 모집

오는 7월 14일-8월 12일(1개월) 동안 인천교구 박문여고 학생들이 우리 본당 협조로 어학연수를 옵니다. 캐나다인 가정에서 체험하기를 원하니 교우들께서는 키치너-워털루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가정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노재현 아킬레오 ☎ 519 590 4493

◎ 예비자 교리 공부 안내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자반 모집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포스터가 준비되어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문의 : 박재영 바오로 ☎ 519 747 4981

♥ 우리들의 정성 ♥
2009년 6월 28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90.00
교 무 금 : \$ 100.00 183(50) 202(50)
감 사 금 : \$ 0
성전건립 : \$ 50.00 241(50)
합 계 : \$ 940.00

▣ 본당신부 단상(斷想)

동양화에서 물고기 세 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삼어도(三魚圖) 또는 삼여도(三餘圖)라고 합니다. 주로 공부하는 곳에 이 그림을 두었습니다. 학생이나 선비에게 공부는 바쁜 일과였고,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는 일이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잘 때, 눈 올 때, 비 올 때 이렇게 세 번의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바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삶의 여유와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나에게 와서 쉬어라.” (마태 11, 28)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말씀과 성체 안에서의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 lucasmuse@korea.com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009-29호

2009. 7. 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미 사 전 레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신계연

성 가

입 당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되 장 (221) 받아주소서

화 답 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복음환호송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독 서

7월 5일 박재영 박경미
7월 12일 김근효 김순희
7월 19일 김용하 김희선

봉 헌

7월 5일 한택중 한재희
7월 12일 박재영 박경미
7월 19일 김근효 김순희

복 사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